

현지 학생과 유학생들의 Connecting Dot: Mentee/Mentor Program in ISU.

안녕하세요! 2013년 가을 학기부터 Iowa State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온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정준영입니다. 교환학생을 온 후 매번 영어로 된 글쓰기에 허덕이다 오랜만에 한글로 글을 적으려고 하니 적지 않은 어색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향수가 밀려옵니다. 작년 가을 학기가 불과 1달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교환학기 종강을 1달 앞두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지내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참 다양하고 생소하지만 신선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걸 보니 의미 있는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Iowa state University (ISU)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SU는 미국의 아이오와주, 에임즈에 있는 종합 주립대학교로서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858년도에 개교를 하여 초창기 농업대학교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8개의 큰 collage로 구성되어 큰 규모의 종합대학교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디자인, 공과계열 대학이 미국 내 대학순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교로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대학교입니다.

앞서 언급한 듯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 간에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이 ISU에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 제가 교환학생을 와서 공식적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International Mentor/Mentee Program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또는 유학생들이 현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서 미국인 학생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한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교육받은 미국인 학생들이 멘토로서 선발되었고, 멘티 또한 지원서에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멘티의 자격을 쫓습니다. 선발된 멘토 멘티들은 1:2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조별 단위의 계획과, 프로그램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나뉘어 멘토 집 방문, 단기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의 프로그램에서 미국친구 브라이언, 중국친구 첸을 만났습니다. 브라이언은 미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저와 첸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국을 알려주었습니다. 헬러윈 때 호박을 사서 깎기도 하였고, 또 미국의 다양한 파티와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미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깰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과의 거리는 시간이 지나도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결국에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반대로 제가 선입견을 품고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타 문화의 수용범위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프로그램 참여는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단체 볼링게임 이벤트



단체 아이스링크장 이벤트



오리엔테이션